

이름의 의미화 과정

이름의 의미화 과정

본인, 장소, 이데올로기, 내 친구 이데올

김 중 현

(대학주보 편집장)

영화배우 이대근과 동명인 친구가 있다. 영화배우와 이름이 같아서인지 그 친구와 함께 다닐 때는 웃지 못할 일도 자주 생기곤 했는데 특히나 낯선 곳에 가서 소개라도 할라치면 한 번씩은 다시 쳐다 보는 시선에 호기심이 가득차 있던 기억이 생생하다.

물론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 내 친구를 영화배우 이대근과 동일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영화배우 이대근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들이 강렬하게 자리잡고 있던 터라 그 이미지가 나의 친구에 대한 호기심으로 전환된 것이라. 왜 사람들은 별 관계도 없는 사람을 연상시켜 친구를 쳐다 보는 건가. 또한 배우로서의 이대근이라는 사람이 지니는 이름은 그야말로 '이, 대, 근'이라는 몇 개의 문자에 불과할 뿐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갖가지 상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이대근'이라는 이름과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체로서의 이대근이 출현했던 연상에서의 모습은 각각 기표와 기의로 만나 하나의 기호로 완성된다. 즉 이대근이라는 이름은 약간의 비대하고 약간의 탐욕스럽고 약간의 정상적이지 못한 목소리의 대명사로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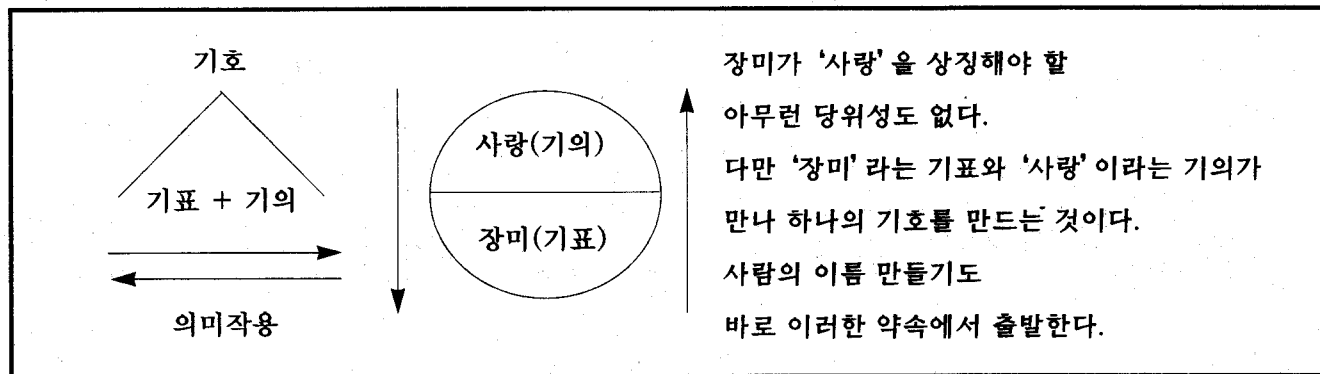
잡게 된 것이다. 사람의 이름이란 바로 이러한 의미작용 속에서 위치를 잡게 된다.

이름 붙이기의 자의성

오래된 기억이지만 한동안 성년이 되는 연인에게 장미와 향수를 선물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여기서 장미는 사랑을 상징하는 하나의 약속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시 많은 장미로 했을까. 손에 잡기 편하고 좀더 아름다운 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지만 여기서 장미보다 편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장미라는 하나의 기표와 사랑이라는 기의 사이에는, 당연하게 맺어져야 할 자연적인 연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름과 그 지시대상 간에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연결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미와 사랑은 한 쌍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당연하면서도 잊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름이란 그저 몇 개의 문자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단 이름이 붙여진 후에는 단순한 문자들의 조합을 넘어 그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물의 본질을 대체하기까지 한다. 즉 사람의 이름은 '자의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나의 본질로 대표된다.

자의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김,중,현'이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누가 알 것인가. 나를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서 내 이름이 무엇이라는 명함 하나라도 교환하지 않는다면 그는 내가 '김, 중, 현'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하는 어떠한 당위성이나 필연성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김, 중, 현'이라는 세 음절의 말은 결코 나다움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얼굴, 나의 행동, 나의 목소리, 그리고 내가 지닌 모든 생각과 사회적 관계가 '중현'이라는 나의 이름과 합쳐져 내가 '김중현'임을 입증해줄 뿐이다. 그만큼 우리들이 평생을 지니고 다니는 이름은 상징적이다.

의미화의 과정

상징은 임의로 만들어진 기호이다. 그래서 기호로서의 이름과 대상체인 나와 의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이나 유

사성없이 하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나 사회적 계약이 곧 의미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름이 지극히 자의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나 또는 관계 속에서는 본질로서 대표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기호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가운데서 비롯되듯이 이름이라는 기호도 사회적 약속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

비근한 예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댄스 그룹 '클론'도 마찬가지다. 클론이라는 명칭이 복제를 지칭하든, 태풍을 이르는 것이든 그것이 노래를 부르는 2인조의 가수들에 붙여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반대로 클론이라는 이름에도 그들을 특징짓는 요소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마침 H.O.T가 나오기 전이었으므로 클론이 먼저 H.O.T라는 이름

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도 누구 하나 뒤따라 사람이 없다. 이름 붙이기는 그야말로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과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론이 '클-론'답게 되는 과정은 이름 붙이기 이후에 시작된다. 태풍과 같이 힘이 넘치고 박력있는 모습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면 왜 그들이 클론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수궁하게 된다. 요즘 한창 잘 나간다는 여성 댄스그룹 S.E.S도 마찬가지다. 무슨 거창한 의미가 있는가 해서 알아본다면 그 별 것 아님에 한 방 먹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구성원들의 가운데 이름의 이니셜로 만든 S.E.S는 그것이 일정한 의미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할 때는 공허한 문자들의 조합에 그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바로 의미화 과정은 이름이라는 기표와 그것이 지니는 내적 의미

의 결합 속에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물론 자의적이지만 많은 이름도 존재한다. 오랜 시간 전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신체적인 특징에서 비롯되거나 태어난 시절 등 그 사람과의 실존적인 연관성 하에서 붙여진 경우도 볼 수 있다. 3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삼월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사회체계가 고도화되고 계약관계가 일상화되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된다.

부호화 되는 이름들

다음 세기는 더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이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 주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그 자의성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인터넷이나 통신상에서 사용하는 ID가 바로 그러한 전조처럼 보인다. 의미없는 숫자 등의 나열, 도형들과 문자의 조합 등 생소하지만, 통신상이라고는 하나 그 사람을 지칭하는 부호화된 이름들로 대체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름이 소멸되면서 디지털로 코드화된 또 다른 정체성 속에서 이전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나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 또한 숫자와 도형, 문자로 특징지어지는 의미화 과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를 생산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의 이름제도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중국문화와의 잦은 접촉으로 중국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고대 우리사회에서는 성(姓)과 이름의 구별이 없었다. 삼국시대로 들어와 상류계급에서 성을 갖기 시작했으나, 서민계급에서는 대개 성이 없어 이름을 쓴 것이다. 지금도 역사 인물로 전해오는 거칠부, 이사부, 사다함, 아사달 등은 성이 없는 예에 속한다.

이러한 성 개념 외에 관(貫)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신라말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본관(本貫), 향관(鄕貫)이라고도 한다. 대개는 씨족의 근거지가 되는 지명에서 취하여진 것으로 그 씨족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성과 관이 같으면 원칙적으로 같은 씨족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씨족이 다르더라도 임금으로부터 성과 본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씨족의 성과 관을 그대로 따서 쓰는 일도 있어서, 반드시 관과 성이 같다고 해서 같은 씨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 사람의 이름에는 아명(兒名), 관명(冠名) 외에 자(字), 호(號), 휘(諱), 시(諡) 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승명(僧名)이나 기명(妓名)같은 직업 전용명도 있었다.

아명은 유명(乳名, 幼名)이라고도

東

상류계급만 이름짓는 법 존재

하여 어린시절에 부르는 이름이었고, 관명은 어른의 이름으로 관례 후부터 부르는 것이다.

자는 이름을 존경하여 잘 부르지 않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명 대신에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도 역시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호는 별호(別號), 아호(雅號), 또는 시호(詩號), 필명(筆名) 등으로 대개 땅 이름이나 고사성어 등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에 부합되는 것으로 정해진다. 호는 신라 말기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다.

휘는 남을 존칭해서 부르는 이름이고, 시는 죽은 다음에 부르는 이름이다. 따라서 시는 생전의 성격과 공과를 생각하여 짓게 된다. 묘호(廟號)와 휘호(徽號)는 원칙적으로 왕실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는 사후에, 휘호는 생전이나 사후에 통하는 것이

동·서양 이름짓기 살펴보기

이름속에 투영된 사회문화

우리는 태어나면서 한평생 입고 살아야 할 '이름'이라는 옷을 입는다. 태어나자마자 입는 이 옷은 자기가 좋은 것을 골라 입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나쁜은 대부분 그 자신의 출생사회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름문화와 밖의 세상, 즉 외국의 이름문화는 어떻게 다를까.

서양인 이에서는 아무런 법칙 없이 되는 대로 이름을 지어 붙였으나, 상류계급에는 엄격한 법이 있었다. 상류계급에서는 아명에 있어서는 부르기 좋고 보편적이며 길복(吉福)을 상징하고, 화용(禍凶)을 피하는 한편, 수명(壽命)적인 것으로 지었다. 그러나, 관명에 있어서는 동양 철학적인 사고 방식에 구속되어 있었다.

이 방식은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항렬(行列)에 있어서 등위와 친등(親等)이 명시되어 있다. 관명이니 호니 항렬이 아니 하지만, 남자 분위의 사회제도였던 만큼 여자들에게는 이름이 없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김용운 기자)

서양 사람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두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개인을 나타내는 퍼스트 네임(first name 또는 Christian name: 세례명)과 가문을 나타내는 가명(family name 또는 sur name)의 두 이름이다. 영국사람들은 1066년에 노르만 민족의 정복이 있기 전에는 이크네임(ekename)이라는 한 이름만을 썼다.

그리고 또 성은 존스톤(Johnston: 존 농장)과 같은 땅이름에 유래하는 것, 스미스(Smith: 대장간), 아처(Archer: 궁술사)와 같이 직업에서 유래하는 것, 디킨슨(Dickenson: 디킨의 자손)과 같이 조상의 이름을 취한 것 등이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이 사용되었지만, 지금도 교회

西

종교, 직업, 조상 등에서 유래

에서는 크리스찬 네임 하나만을 사용하고 성은 무시되는 일이 있다. 특히 왕실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 나라에서는 또 습관적으로 크리스찬 네임의 선정을 목사가 거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이름의 선정은 영국과 미국이 프랑스나 독일 등의 대륙 여러나라에 비해 훨씬 자유롭다. 프랑스에서는 목사가 역사상의 인물이나 교회사의 성인 이름 중에서 찾아 이름을 결정해 주었는데, 지금도 공식 명부에 등록된 것 중에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크리스찬 네임도 기원적으로 각각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아동들의 장래에 대한 소망을 포함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히브리어로 '평화의 왕자'라는 뜻의 솔로몬(Solomon), '신의 초대'라는 뜻의 사무엘(Samuel) 등은 그 보기에 속

한다. 흉년에 태어난 여자는 우나(Una)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켈트어로 '기근'이라는 뜻이다. 금발의 여자에게는 '플라비아(Flavia: 라틴어로 노랑색)'라든가 '블랑슈(Blanche: 프랑스어로 흰색)같은 색깔과 관련있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머시(Mercy: 자비), 패이션스(Patience: 인내), 그레이스(Grace: 은혜) 등은 청교도에 의한 명명이다.

크리스찬 네임은 대체로 옛날의 어떤 뜻 있는 낱말로부터 취하여졌다. 히브리어로부터 벤자민(Benjamin), 그리스어로부터 조지(George), 앤드류(Andrew), 라틴어로부터 아미(Amy), 독일어로부터 프레데릭(Frederic), 리처드(Richard), 켈트어로부터 도널드(Donald), 고대 영어로부터 알프레드(Alfred) 등이 나타났다. 이것을 크게 나누면 성서에 나타난 인명과 로마적, 중세적 인명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선택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었다.

서양사람의 이름은 나라마다 음이나 표기가 조금씩 다르다. 서양의 이름은 개인명 다음에 가명(家名)을 쓴다. 이것이 그들의 이름 구조상의 공통점인 동시에 동양이름과의 차이점이다.

(김용운 기자)

취업스쿨 수강신청 안내

취업 스쿨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돕는 한편, 진로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이룬 시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스쿨은 인성/진로 특강, 프리젠테이션 능력 개발 과정 및 비서실무 과정을 두어 학생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1. 수강신청 방법

학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 목적	학점	교수명	강의시간 및 시간
전학년	2	90201	취업스쿨(1) 프리젠테이션 과정	1	김수곤 장재성 장수용 구화철	98.3.10~4.30 매주(목) 15:00~17:00
		90202	취업스쿨(2) 비서실무 과정	1	김수곤 장재성 김경희	98.3.10~4.30 매주(목) 15:00~17:00

※ 특히 비서실무과정은 비서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정보관리, 국제예절, 조직적응, 자기개발 등의 분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2. 학점취득

취업스쿨의 학점은 1학점이다. 수업 2/3이상 출석하면 시험없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시간표 P11~12 참조

서울캠퍼스 학생처

'98년도 군장학생 모집

1. 모집인원: 1학년(○○명), 2학년(○○명), 3학년(○○명)

2. 지원자격
1학년('76. 1. 1~'82. 1. 1 출생자)
2학년('75. 1. 1~'82. 1. 1 출생자)
3학년('74. 1. 1~'82. 1. 1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98. 3.16~4.30

구분	1차 지원서	2차 (선정결과서)
4년제 정학생 (1학년)	지원서(사건첨부 1매) 및 서약서 1부 지원자 인적사항 1부 대학 성적증명서 1부 복무연장 또는 장기 복무지원서 1부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각 2부	· 신원전송서 4부(사건첨부) · 재정보증서, 납세, 건강증명 각 1부
2,3년제 장학생	· 지원서(사건첨부 1매) 및 서약서 1부 · 대학 1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복무연장 또는 장기 복무지원서 ·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각 2부	

4. 선발절차

가. 1차: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 성적), 면접, 체력검정

나. 2차: 신체검사

5. 합격자 발표: '98년 8월 10일

6. 특전

가. 학군 후보생 지원서 '가' 부분 예, 선발시 우대나,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 지급
다.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 분류 보직 활용
라.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채용)

7. 문의처

서울캠퍼스 학군단 행정실: 961-0085/0087
수원캠퍼스 학군단 행정실: 0331)201-2027 /2028

학생군사교육단

한국어 과정 학생 민박 모집

국제교육원에서는 '98 한국국제협력단 초청 한국어 연수(1차) 프로그램 기간 동안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민박을 할 가정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민박기간: 1998년 4월 20일~7월 20일(3개월)
2. 민박대상자
12개월 28명(개발도상국 공무원, 외교관, 학생 등)
3. 민박목적

· 일상생활을 한국인들과 공유함으로써 학습효과 고양
· 한국문화의 근간인 가족문화에 융화시켜 한국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기회 제공
· 민박 가정에서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외교의 기호로 활용

4. 민박 가정의 의무

· 매월 일정액의 민박 지원금 제공
· 외국인 학생을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함

5. 민박 가정 지원 내역

· 매월 일정액의 민박 지원금 제공
· 입국식, 수료식 및 각종 행사 초청
· 향후 유망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6. 신청 자격

· 경제대 인근지역(통학시간 30~40분 이내)에 거주하며 주거시설이 적절하고 독방제공이 가능한 자
· 최소 가족구성원(부모 및 자녀)과 안정적 가정 분위기, 하숙 및 자취생 불가
· 일정수준의 언어소통(영어 및 해당국 언어)이 가능한 자

7. 선정절차

3월 26일(목)~4월 14일(화)/4월 15일 결과 통보
1차 서류심사 및 전화 인터뷰
2차 방문심사 평가
3차 선정위원회 최종선정

8. 접수기간: 1998년 3월 11일(수)~3월 25일(수)
9. 문의 및 접수처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교학부(961-0081~2)
※ Fax접수(956-9018)도 가능함

국제교육원

새마을금고 결산(청산) 공고

1979년 8월 14일 새마을금고법(비영리법인 186호)에 의해 설립된 '경희대학교 새마을금고'가 금번 법제정으로 인해 영세법인 정리 대상에 해당되어 지난 1997년 12월말로 해산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32조 및 경희대학교 새마을금고 정관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말 해산과 동시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의 출자금 등을 정리하고 1998년 2월 28일 청산종결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원님의 출자금과 배당금 일체는 3월 10일자로 금로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20년간 참여 회원들의 사랑을 받으며 운영해 오던 것이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분	1997. 12. 31		1998. 2. 28		비고
계정과목	차	변	차	변	
일반예치금	109,467,117		1,153,548,510		
신용대출금	1,265,754,251				
대손충당금	12,657,740				
연합회출자금	6,095,266				
미수금					
가지금					
출자금		1,180,105,349		1,149,559,999	
미지급금		154,060			
미지급출자금				3,002,000	
미지급배당금		631,190			
미지급법인세		13,199,070			
원천징수예수금				118,540	
퇴직급여충당금		1,187,500			
법정적립금		48,956,931			
특별적립금		5,045,358			
임의적립금		900,000			
이월잉여금		40,152		867,971	
미처분이익잉여금		118,439,484			
당기순이익					
합계	1,368,659,094	1,368,659,094	1,153,548,510	1,153,548,510	

1) 97년 12월말 출자금 11억8천10만원에서 회원님의 출자금 중 일부는 대출금상환대체하고 배당금지급 정리 등으로 98년 2월말은 11억4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2) 미지급출자금 3백만2천원(충도퇴직자 배당금 발생 별도지급)
3) 이월잉여금 86만7천9백71원(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

새마을금고 이사장